



## 일본의 경기침체 지속: 휴·폐업 증가세 지속

박정희 선임연구원

■ 최근 동경상공리서치가 발표한 ‘2012년 전국 기업도산 상황’에 따르면, 전국 기업의 도산건수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1만 2,124건을, 총 부채는 6.7% 증가한 3조 8,346억 엔으로 나타났음.<sup>1)</sup>

- 일본 기업의 도산건수는 1993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가장 적은 수치로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과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긴급보증’ 등의 자금 융통 지원 효과가 반영된 것임.
  - 일본의 금융원활화법은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해 2009년 12월에 한시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중소기업의 차입금 변제를 유예하는 등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법안이며, 오는 3월 말 기한이 끝나게 돼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동일본 대지진 부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아베 총리가 중소기업 대책과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20조 엔의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라고 전함.
- 한편, 부채 총액은 2년 만에 전년 수준을 웃돌았으나, 1993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으로는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임.
  - 또한 부채가 1억 엔 미만인 도산이 69.3%를 차지해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한 도산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 산업별 도산건수에 있어서는 10개 산업 중 건설업과 제조업 등 6개 산업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인 반면, 도매업, 금융·보험업, 운수업 등이 전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업은 전년대비 11.5% 감소한 3,002건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부동산 등이 나란히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임.
  - 반면,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은 도산건수가 2,608건을 기록해 2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함.
- 도매업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1,790건을 기록, 운수업도 전년대비 14.3% 증가한 473건의 도산건수를 기록하였음.

1) 부채총액 1,000만 엔 이상의 파산을 집계한 수치임.

- 운수업의 경우 최근 연료 가격의 상승과 수출 정체 등으로 인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이 침체되었음.
- 한편, 금융·보험업의 경우 2012년 도산기업 수가 전년대비 7.4% 증가한 58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부채는 4,424억 엔을 기록함.

〈그림 1〉 일본 전국 도산기업 건수 및 부채총액



자료: 2012년 全国企業倒産状況

〈표 1〉 산업별 도산 건수 및 부채총액

산업별 분류	건수(건)	증감률	부채(백만 엔)
농림·어업·광업	98	0.0	63,501
건설업	3,002	-11.5	403,047
제조업	1,790	-5.8	1,137,362
도매업	1,790	9.1	308,872
소매업	1,431	-3.9	157,573
금융보험업	58	7.4	442,428
부동산	367	-12.6	221,424
운수업	473	14.3	245,872
정보통신업	507	-1.4	66,083
서비스업·기타	2,608	-7.3	788,401
총	12,124	-4.8	3,834,563

자료: 2012년 全国企業倒産状況

■ 일본의 지역별 도산건수는 9개 지역 가운데 6개 지역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후쿠(東北)지역은 전년대비 24.1% 감소한 343건으로 1967년 311건 기록 이후 45년 만에 400건을 밑돌았으며, 간토(關東) 4,659건(△ 1.4%), 긴키(近畿) 3,075건(△ 11.0%), 주부(中部) 1,563건(△ 4.8%), 주고쿠(中國) 514건(△ 0.9%), 큐슈(九州) 890건(△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홋카이도(北海道)가 전년대비 0.6% 증가한 457건을 기록, 호쿠리쿠(北陸地方)와 시코쿠(四國) 등도 각각 전년대비 7.0%,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2012년 전국 기업의 도산건수는 4년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아 199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휴폐업·해산기업<sup>2)</sup> 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 휴폐업·해산기업 수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2만 7,132건으로 연간 도산건수에 비해 2.2배나 높은 수준임.
- 일본 경제 전반을 둘러싼 기업 환경이 어렵고 기업의 실적 부진, 후계자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에 제동이 걸리면서 휴폐업·해산하는 기업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도산과 달리,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 활동을 정지하는 것을 「휴폐업」, 주로 상업등기 등에서 해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해산」으로 정의함.

- 산업별 휴폐업·해산기업 수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소매, 농림·어업·광업 등에서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특히나 영세 규모의 음식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업이나 소매업도 디스플레이션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휴폐업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서비스업의 휴폐업·해산과 금융·보험업의 도산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회복지원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동경상공리서치 外, 2/12)